



CON
ZAR
S

답사기 02-03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② _ 3대 미술관 건축물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정기모임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남 영광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여수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 안성섭 건축사(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당선
전라남도 함평,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성료
전북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최고등급 '6년 인증' 획득
전북 건단연, 우범기 전주 시장과 간담회 개최

답사기 10

남문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전일빌딩을 다녀와서

설계공모 11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석고대죄
한 장의 사진 _ The Hive(Learning Hub South - LHS)
책 소개 _ 행복의 건축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3.184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히로시마 건축물 탐방 ② _ 3대 미술관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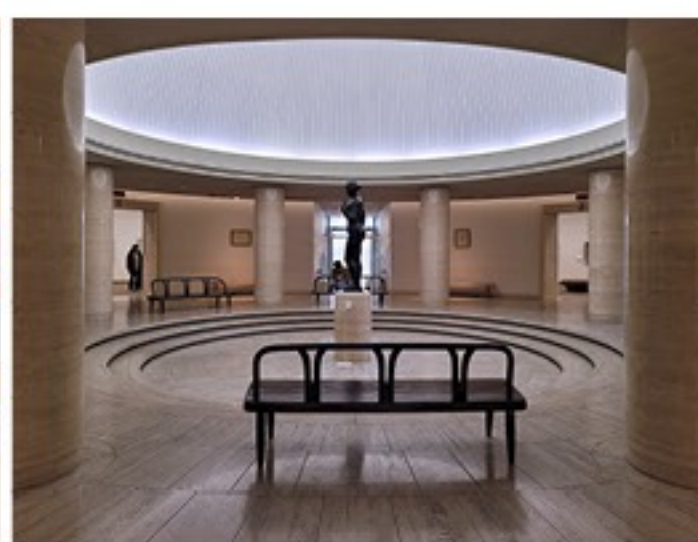
이동희 교수 /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히로시마미술관 전경



히로시마미술관 전시관 연결 통로



히로시마미술관 중앙부



히로시마미술관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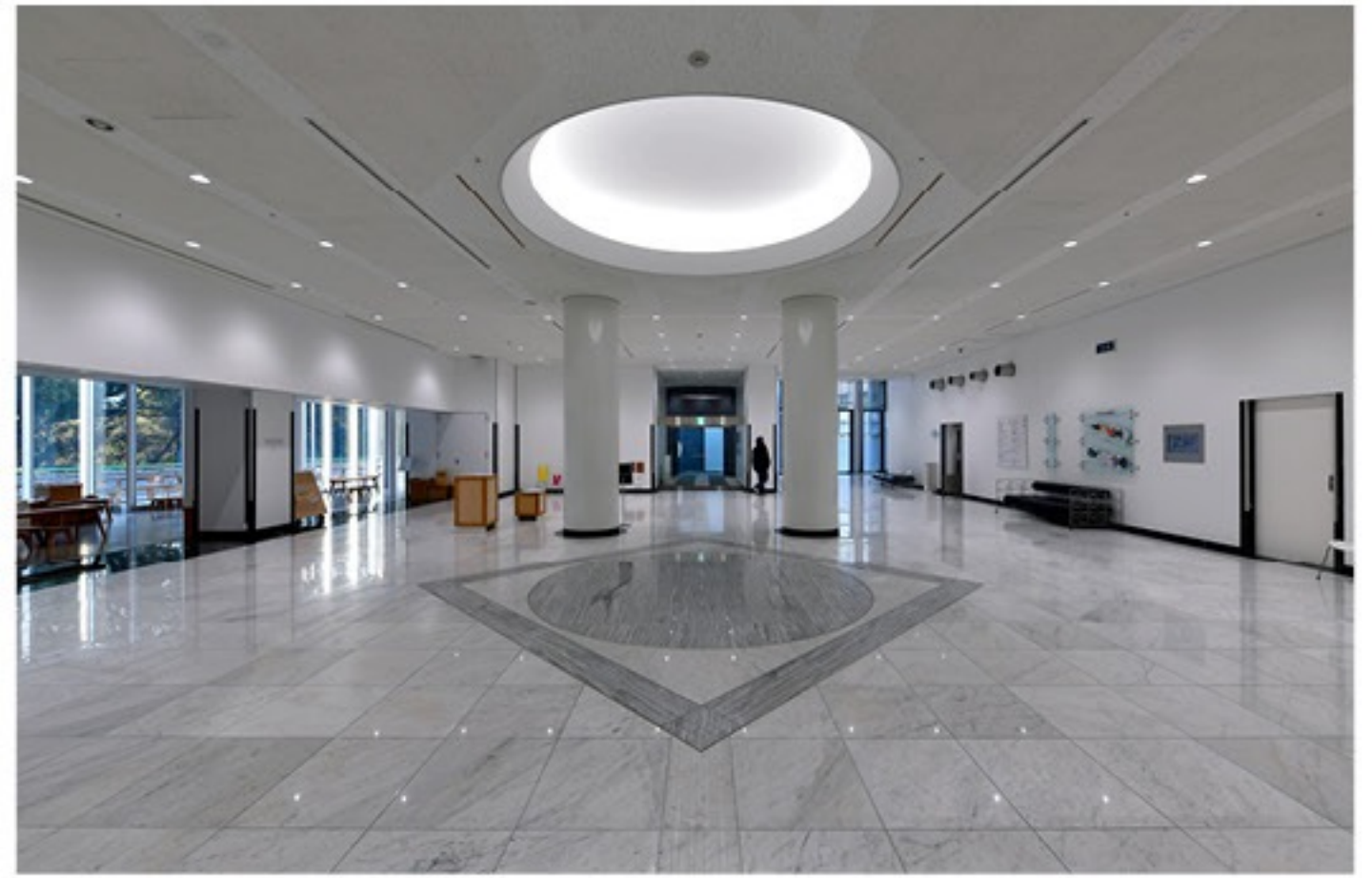
‘탁, 탁탁’ 오랜만에 컴퓨터의 일본어 자판을 두드린다. 일본 히로시마(広島), 그곳엔 어떤 건축물들이 있을까! ‘평화기념자료관’과 ‘원폭돔’은 워낙 유명하기에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밖에 학생들과 함께 가볼 만한 건축물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를 한참 둘러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건축물을 찾아냈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상자 몇 개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풍경... 최근에 건립된 미술관이었다. 그것도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가의 작품이다. ‘그렇대! 미술관 건축물들을 찾아보자.’ 히로시마현엔 매력 넘치고 개성 있는 미술관들이 많다고 했으니... 곧이어 히로시마 거주 현지인이 추천하는 미술관 10개가 검색되었다.

개관 연도별로 나열하면, 히로시마미술관(ひろしま美術館, 1978), 후쿠야마미술관(ふくやま美術館, 1988), 히로시마시현대미술관(広島市現代美術館, 1989), 우드완미술관(ウッドワン美術館, 1996), 히로시마현립미술관(広島県立美術館, 1996), 히라야마미쿠오미술관(平山郁夫美術館, 1997), 이즈미미술관(泉美術館, 1997), 오노미치시립미술관(尾道市立美術館, 2003), 미하라예술문화센터 보보로(三原市芸術文化センター ポポロ, 2007), 시모세미술관(下瀬美術館, 2023)의 순이다. 그중에는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 안도 타다오(安藤忠雄), 마키 후미히코(槇文彦), 반 시게루(坂茂)의 설계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어느 것을 찾아가 볼까? 고민하다가 전체적인 여행 일정과 경로를 생각해, 히로시마시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히로시마미술관, 히로시마시현대미술관, 히로시마현립미술관’과 가장 최근에 건립된 ‘시모세미술관’의 4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히로시마미술관은 히로시마시 중심부의 중앙공원 안에 있으며, 서측에는 히로시마시립중앙도서관이, 길 건너 북쪽편에는 히로시마호국신사와 히로시마성이 위치한다. 1978년 11월 히로시마은행 창업 100주년을 맞아 건립되었으며, 원폭 투하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심성을 달래기 위해, ‘사랑과 평안’을 주제로 ‘높은 수준의 미를 제공하는 전당’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히로시마은행이 수집한 프랑스 인상파 작품을 비롯한 일본근대서양화와 일본화 등 약 300점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밀레, 모네, 르누아르, 고흐, 피카소, 샤갈 등과 같은 유럽 근대미술 거장



히로시마현대미술관 중앙 진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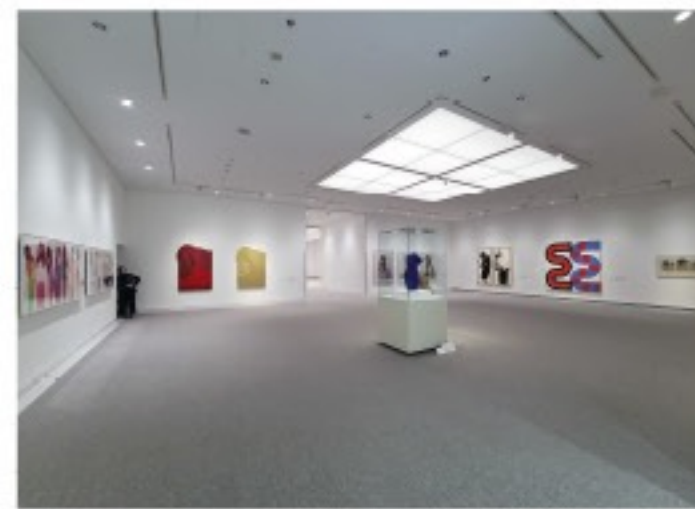
히로시마현대미술관 현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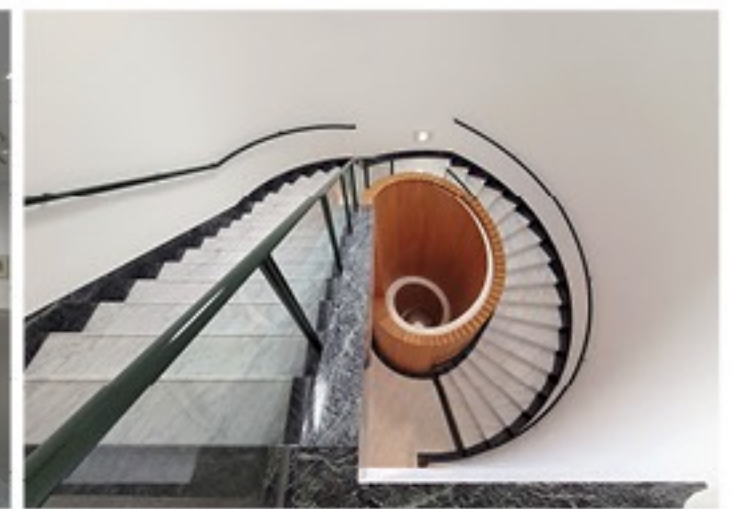
히로시마현대미술관 우측 외부



히로시마현대미술관 중정 하늘



히로시마현대미술관 전시실



히로시마현대미술관 지하 계단

들의 작품 약 80점이 전시되는 상설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건축설계는 니켄세케이(日建設計)의 요사노 히사시(與謝野久, 1946~)가 담당했는데, 그의 증조부와 조부모가 모두 '가인(歌人)'이었던 사연을 포함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건축가로 회자되고 있다. 미술관은 단층으로서, 중앙부에 원형의 본관 건축물(상설전시장)이 위치하고, 그것을 둘러싼 형태로 순회형 직사각형 회랑이 조성되어 있다. 회랑과 연결된 남측 건축물은 기념품점과 카페, 북측 건축물은 특별전시장과 기획전시장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본관의 중앙동은 원폭돔(舊広島縣産業奨励館, 1915) 모양을, 주변의 회랑은 이츠쿠시마신사(厳島神社, 593) 배치를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했다고 전한다. 각각 히로시마의 고대와 근대를 대표하는 유네스코(UNESCO) 등재 세계유산 건축물이다. 한편, 미술관 남측 정원에 식재된 마로니에 나무는 1980년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아들인 클로드(Claude Picasso, 1947~)가 개관 기념으로 보낸 것이며, 그것을 기념해 조성한 '마로니에 샘(연못)'에는 미술관에 기증된 각종 잉어(錦鯉)가 산다고 한다.

히로시마현대미술관은 히로시마역 남쪽 히지야마공원(比治山公園) 내에 위치하며, 건축물 측면 입구가 근처의 히로시마시만화도서관과 계단을 통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1989년 5월에 개관했으며,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미술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2023년 3월에 재개관했다. 건축물 형상은 중앙부에 한쪽이 약간 트인 원형 중정이 조성되어 있고, 양쪽에 두세 개의 막대형 공간들이 마치 날개처럼 붙어 있는 모습이다. 속이 텅 빈 원형 중정 조성 및 강철과 콘크리트 사용은 다분히 원폭돔을 의식한 것이며, 중정 벽체에 시냇바늘처럼 생긴 틈의 방향도 산 아래 저 멀리 원폭돔을 가리키고 있다. 중정에서 관내로 진입하면 현관홀과 다목적공간과 카페가 있고, 특별전시실, 컬렉션전시실, 영상도서실, 스튜디오 등이 펼쳐진다.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는 구로카와 기쇼(黒川紀章, 1934~2007)이다. 그는 '신진대사'를 뜻하는 '메타볼리즘(Metabolism)'의 대표주자로서 20세기 전 세계 건축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그리고 인간과 환경의 공생을 강조했던 건축가이다. 훗날의 다카마츠 신(高松伸, 1948~)과 함께 금속 재료 사용과 기계적 미학을 추구하는 디자인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와 동생이 모두 건축가이며, 앞서 언급한 단계 겐조의 제자이다. 2007년 도쿄도지사과 제21회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그 2개월 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나는 대학원 시절 '신건축(新建築)' 잡지에 실린 그의 설계 작품을 보고 특이한 디자인에 매우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틀림없이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으리라 생각하며, 당시 건축에만 전념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히로시마역과 히로시마성 사이 중간쯤에 위치하며 어느 쪽에서든 걸어서 20분 정도에 접근할 수 있다. 정문 바로 앞에는 노면전차 정류소

(縮景園前)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남쪽으로 50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건축가 무라노 토고(村野藤吾, 1891~1984)의 대표작 세계평화기념성당(1953)이 있으니 함께 탐방하면 좋다. 원래는 1968년 9월에 이 지역(中國地方)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건립된 것인데, 1996년 10월 이곳 스키테이엔(縮景園) 전통 정원 부지에 신축해 재개관한 것이다. 주로 1920~30년대의 일본 근현대 미술작품과 히로시마와 인연이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곳으로, 일본과 아시아 공예 등 약 5,000점이 소장 또는 전시되어 있다. 2층 상설전시장에 있는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비너스의 꿈(Dream of Venus, 1939)' 등이 유명하다.

건축설계는 '도심 속 휴게공간'을 주제로 히로시마현 주도하에 니켄세케이(日建設計)가 담당했고, 히로시마 번주(藩主)였던 아사노가(淺野家)의 스키테이엔 정원과 연계해 관람하도록 계획되었다.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두 개의 막대형 공간을 나란히 늘어놓은 형상이다. 외벽에는 연한 갈색 타일을 붙이고 띄엄띄엄 흰 수평선 띠를 돌렸으며, 지붕은 조각달 모양이 길게 이어진 형태(かまぼこ型)로 마감했다. 1층 바닥에서 3층 천장까지 아트리움이 조성되어 시원한 개방감이 들고, 거대한 커튼월 통창을 통해 스키테이엔 정원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로비, 2층에는 상설전시장, 3층에는 특별전시장이 위치한다. 건축 미학적으로 크게 특별한 것을 찾기는 어려우나 정원을 전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 분위기가 돋보인다. 참고로 실내 공간 및 작품 촬영에 많은 제한이 있어 좋은 사진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 정면

모서리 벽돌집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 163, 2층 / Tel. 062-676-226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99번길 14 / 대지면적 : 175.40㎡ / 건축면적 : 105.16㎡ / 연면적 : 284.64㎡ / 건폐율 : 59.95%
용적률 : 162.28%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상가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마감 : 롱브릭타일, 로이복층유리, 로이삼중유리

부지는 상업가로 이면의 한적한 주거지에 자리하고 있다. 3대 가족을 위한 거주영역과 작은 상가를 포함하는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도심형 상가주택의 전형(가로변 상가와 상부 주거)을 따르면서도 다양한 공간 경험과 독자적인 가로경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사와 학업, 경제활동 등 저마다의 일상을 지닌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유영역은 1.5개 층 높이의 단면으로 자연광이 가득 스며드는 개방적인 분위기로 조성하고, 개별 침실들은 각자의 사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안락한 스케일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2층 주방과 세탁실, 3층 욕상으로 이어지는 가사 동선은 엘리베이터와 순환 동선구조를 통해 막힘없이 흐르고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가사 전반을 담당하는 노모의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좁은 평면의 한계로 인해 나누어진 2층과 3층의 주거 공간은 빛이 가득 드리워진 밝은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며 전반적인 공간의 형상은 부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담아 간결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거실 모서리의 넓은 창은 가로변의 계절감이나 다양한 분위기를 집 내부로 끌어들인다.

교차로의 모서리에서 강렬하게 눈에 띄는 외관은 브릭의 옷을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인지되면서도 다양한 개구부의 크기와 막히거나 뚫린 면, 거친 면과 매끈한 면의 대비, 또는 의도된 비례감들로 인하여 단조롭지만은 않은 나뭇의 미학을 담고자 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광주건축사회, 제38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JS웨딩컨벤션 홀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JS웨딩컨벤션 2층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는 국민 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내외빈 소개와 표창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1부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신재욱 본부장, 김삼현 건축사(길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양동희 사무처장이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및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으며, 광주건축사회 및 건축사신문 임기만료 및 퇴임 임원 11인에게 공로패와 건축직 공무원 7인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부에 진행될 부의안건은 '광주건축사회 회칙개정 건'과 '2024년도 일반·특별 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과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총 4개가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 후 광주건축사신문 제43차 정기총회, 광주건축사

연금관리회 제19차 연금관리회도 이어서 개최된다.

끝으로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협회의 발전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회장 정인순)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광주 동구 무등갤러리 1층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동구청 임택 구청장, 북구청 문인 구청장, 광주건축사회 정재한 부회장을 비롯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임택 구청장은 "지난 30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건미회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문화의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술동호회로 지난 1996년 4월에 창립하여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정기모임 개최

지난 3월 13일 어반브룩에서...



광주건축사회 여성위원회 박주현 위원장이 주관하는 여성 건축사 정기모임이 지난 3월 13일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건축사회 여성위원회 박주현 위원장을 비롯해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남구 어반브룩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성 건축사 회원 간 유대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업무 교류와 활동 영역 확대, 리더십 고취,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 건축사들의 기술적 역량과 섬세함이 지역 건축계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건축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광주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안전본부장 간담회 개최

지난 5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 5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남구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구 호남지역본부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장동원·정재한 부회장,

김선영 부이사장이 참석하여 건축업무관련 상호 협력사항과 양기관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회원들의 업무 간소화 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32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예비후보자 1인 등록... 본 등록 기간 오는 2월 21일까지



(사진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제공)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이하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지난달 27일(목) 오후 6시 30분 어반브룩 3층 어반리움 홀에서 31대 이순미 회장과 32대 김기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길종원, (사)대

한도시설계학회 회장 박성진, (사)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지회 부회장 장동원을 비롯하여 광주전남건축가협회 원로 및 명예회장, 회원 60명이 참석하였다.

김기준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선배님들의 조언과 후배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광주전남건축가회가 더욱 위상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23-24년도 협회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우수건축물탐방 <건축_사람을 만나다>의 미니 출판기념회를 열어 2년간의 사업에 대하여 회고하며 25년도에도 본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회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안길전·김선영·장지숙 건축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광주 남구청에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사진 = 남구청 제공)

광주건축사회 안길전(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 김선영(일우건축사무소 대표), 장지숙(건축사사무소 해람 대표) 건축사 3명은 지난 11일 구청장실에서 김병내 남구청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남구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자인 안길전 건축사와 김선영 건축사는 각각 100만원, 2년 연속 기부자인 장지숙 건축사는 100만원을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발전에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개토론 개최

주거 용적률 현행 ‘400%에서 540%’ 상향에 대한 논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지난 11일 공개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준영 시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홍근 건축사가 출연했다. 패널들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박필순 위원장은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건축사도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50여년 전 묶어 놓은 것이다”며 “현재 도심은 복합개발 형태로 바뀌는 만큼 도심 활력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국장은 “용적률을 높이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우려되고, “도시 관리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의 본래의 목적은 상업, 업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여기에 주거를 추가하게 되면 모텔·유흥시설에 나 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고 맞섰다.

노경수 교수도 “중심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특혜와 연결될 수 있고 주택 시장 붕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며 “도시 개발은 질서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광주시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다.

광주 회원동정

•입회

- 김영철 건축사 / 엘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112번길 11-11, 1층
- 이정훈 건축사 / 낭만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수등로 273-13, 5층

•결혼

- 진성수 건축사 / (주)수목 건축사사무소 / 장녀결혼 - 2025년 03월 29일(토)

•부고

- 박형갑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토형 / 모친상 - 2025년 02월 23일(일)
- 박현진 건축사 /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5년 02월 28일(금)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03월 17일(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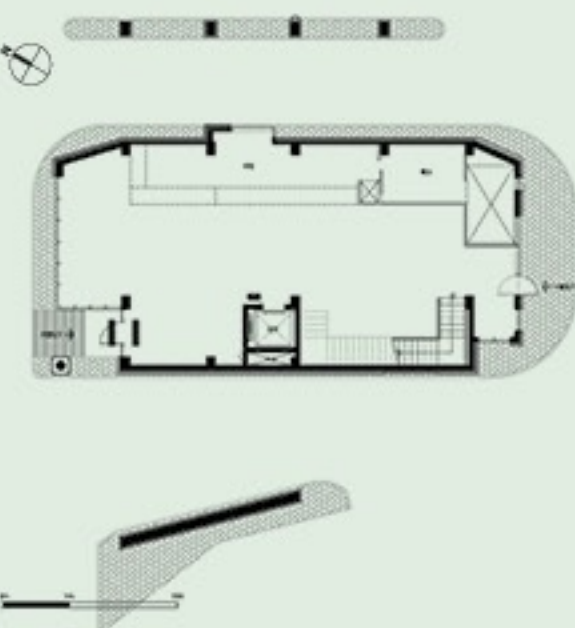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No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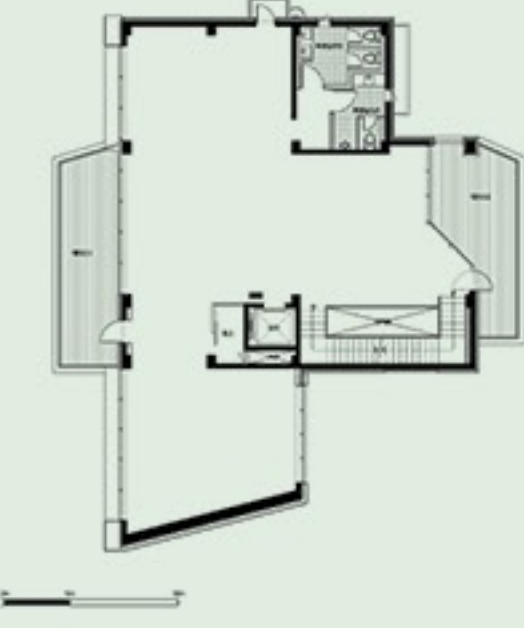
황상아 건축사 / 상아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비봉2길 3-30, 2층 201호
Tel. 061-727-5451

대지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1번지 / 대지면적: 1,930.00㎡ / 건축면적: 337.255㎡ / 연면적: 582.095㎡ / 건폐율: 17.47%
용적률: 30.16% / 규모: 지상 3층 / 주용도: 휴게음식점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불소수지 강판 마름모접기마감, 화강석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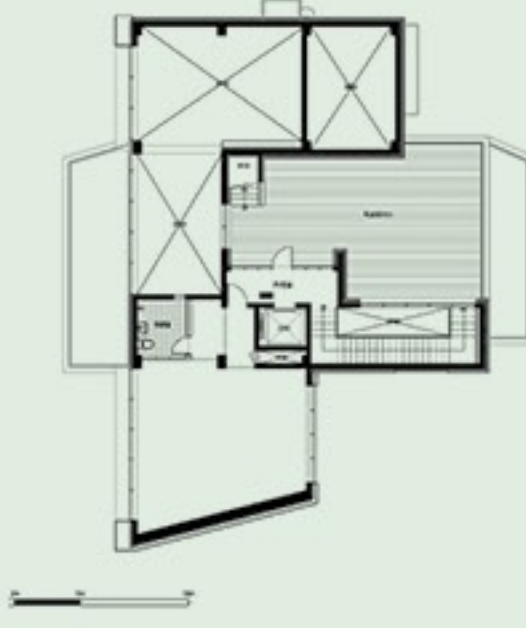
No 11. 자연과 공간의 어울림
주어진 대지에 최근 유행을 반영한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카페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적의 통로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상업공간을 적정 면적 이상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를 이용한 평면구성과 각층마다 테라스 공간을 구석구석 배치하여 실내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하였다. 2층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전면 창호는 3층과 연결되는 통창으로 구성하여 사계절 내내 자연의 변화 과정이 실내에 투영되도록 하였다. 계단 부분은 계단실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실내 공간 속에 위치 하도록 하여 정적인 실내에서 동적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동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옥상테라스 공간은 각각 다른 레벨에서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3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이 외부디자인에 반영되도록 외장재료와 색상을 세심하게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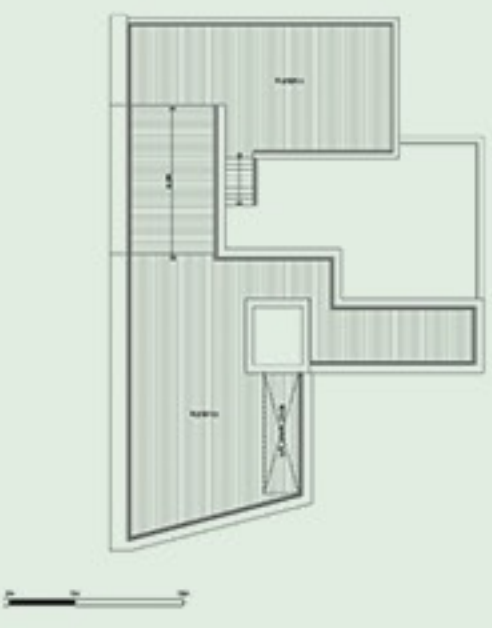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전남 영광군,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방향, 건축행정발전에 대해 논의



(사진 = 영광군 제공)

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달 20일 군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축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2022년도부터 지역건축사회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부터는 토목설계사무소도 참여해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방향을 논의 등 건축행정발전을 위한 제안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 안내, 최근 건축 관련법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건축행정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신속·친절·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건축·토목설계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공모사업, 안성섭 건축사(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당선 공간적 한계, 외부 공원과 상호 연결 등 높은 점수를 평가 받아... 전라남도 여수시가 환경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로운 환경·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 뒀다. 여수시는 환경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에서 안성섭 건축사(주)우도



(사진 = 여주시 제공)

및 층간 상호 연결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창출했으며,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랜드마크로서 특징이 잘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이 설계안을 기반으로 이달 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 오는 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의 문을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생태 특화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환경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당선된 공모안을 발전시켜 차질 없이 재개관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함평,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함평의 모든 건축물로 해체계획서 수수료 20% 감면...



(사진 = 함평군청 제공)

전남 함평지역 건축사들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지난달 20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8월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용이 최소 100만~250만원까지 소요됐다. 협약에 따라 감면 대상은 함평의 모든 건축물(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으며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이다.

건축물관리법이 규정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함평이 처음이다.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스런 건축물과 빈집 정비사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 건축 분야에서 수수료 감액 혜택은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뜻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한 건축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순천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해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는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기준을 보조금을 받은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 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67개 단지(노후 공동주택 50개 단지, 근로자 기본시설 17개 단지)이며,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최대 7,800만원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근로자 기본시설 개선, 긴급 재난 예방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의 설계를 의무화하고, 순천지역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단지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축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완료 후에는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와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역 건축업계 및 관련 업종과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 34동,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전남 목포시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총 34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 등으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 최대 352만원이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 지원가구인 취약계층에는 건물 한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액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발생한다.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 서비스 실시

총 14개 업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5일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관내 건축사를 통해 올해 2월부터 건축사와 함께하는 인허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작년에 건축·개발·환경 민원 담당 팀장을 주축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관내 건축사 14개 업체에서 직접 건축인허가 절차,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관리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민원인들의 건축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인허가 무료 상담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허가과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최득봉 건축사 / (주)에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서초길 4, 1층

•근무처 변경

- 박종혁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진등1길 3, 2층

•변경(소재지)

- 신재관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진등1길 3, 2층

- 김태원 건축사 / 씨엔디(CND)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생로 48, 409호

- 최현웅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루 / 전남 담양군 금성명 와룡길 57-31, 1층

•결혼

- 박은비 건축사 / 가로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5년 2월 22일(토)

- 정 훈 건축사 / 신화 건축사사무소 / 장남결혼 - 2025년 3월 22일(토)

- 이환영 건축사 / 오룡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3월 22일(토)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아릅게
반석기초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평이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7-9 / 대지면적 : 595㎡ / 건축면적 : 116.5㎡ / 연면적 : 199.2㎡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체치장(노출)콘크리트, 롱브릭타일 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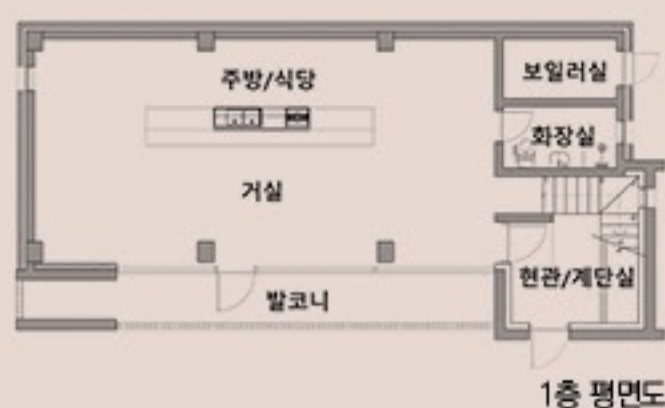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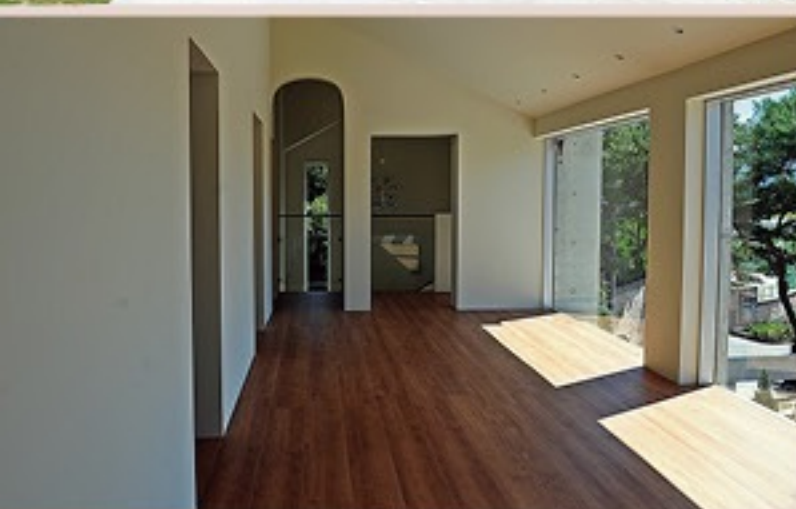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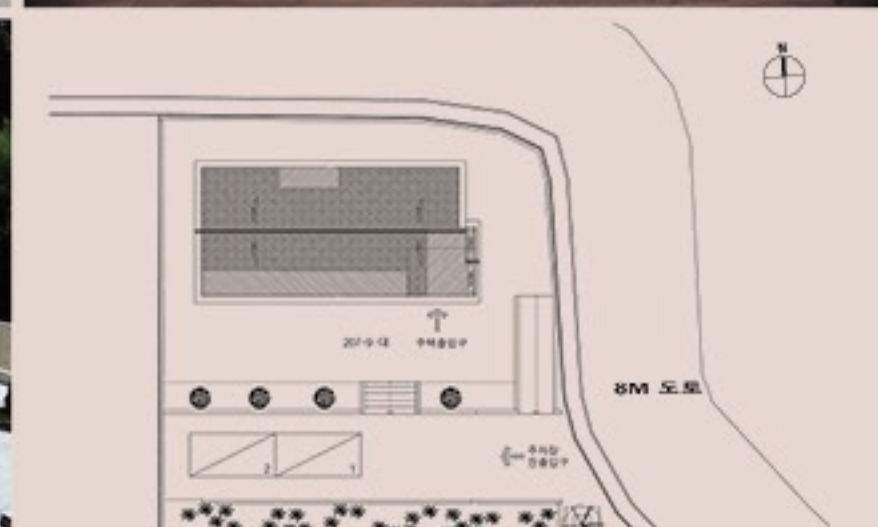
다반·사(茶飯·舍)

김문호 건축사 / 이륙 건축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42, 1506호
 Tel. 063-452-2666

다반사(茶飯事) 다반과 집사(舍)의 합성으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집”을 표현하였다.

미래 주거 트렌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인 엔터라운지(ENTRANCE + ENTERTAINMENT + LOUNGE) 공간은 과거에는 외부에서 주로 이뤄졌던 활동을 집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웃, 지인, 반려 동물과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외를 연결하는 오픈형 소셜 공간이다.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원하는 미래 주거 소비층의 니즈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여 미래 주거의 편의성과 기능적 다양성을 높이고자 한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 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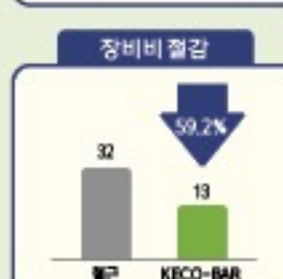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연약지반 (주)파나시아 공장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 성료

지난 13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5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등 승인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시도 회장 및 소속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수지결산 및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전북자치도 건축사회 임원 및 감사와 대의원 선출을 진행하였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에게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을, '(유)장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박진만 건축사', '에 건축사사무소 장영기 건축사', '이륙 건축사사무소 김문호 건축사' 등 3명에게는 전북자치도지사 표창을 시상하였다. 이성열 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스마트 기술의 도입,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역적 특성과 문화,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건축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축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전북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건축사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건축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건축이 전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최고등급 '6년 인증' 획득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정 긍정적인 평가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최고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

건축학교육 인증은 국제건축사연맹이 요구하는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학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의 건축학과 졸업자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축학교육 인증을 획득한 원광대 건축학과는 2018년 2차 인증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고 이번 3차 인증에서도 최고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31년 1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이번 인증에서 원광대 건축학과는 대학 교육 목표에 맞춰 도덕 기반의 건축디자인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가로서의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한 건축학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과 소통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 점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증 과정을 총괄한 건축학과장 박연정 교수는 "인증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학 본부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학과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건축 산업계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연계 기반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개발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가 양성을 목표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건단연, 우범기 전주 시장과 간담회 개최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제고 요청 등...



(사진 =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제공)

전북 건설단체연합회(회장 소재철)는 24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국내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 발주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 회장은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 발주를 우선 검토하고,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주종합경기장 전시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왕의공원 프로젝트 사업, 옛 대한방직터 부지개발사업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개발 이익이 온전히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참여 제고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기 부양, 기반시설 공급, 성장기반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오늘 전달받은 각 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 감안하겠다"며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주시의 공공 분야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와 참여율 제고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 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되어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건축사회,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제2회 출판기념회 개최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선배들의 철학가치를 담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건축사 13인으로 구성된 건축사들이 선배 건축사 10인의 삶을 기록한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의 제2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책은 지역에서 건축사로 활동하며 선배 건축

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건축사로서 느낀 보람과 역경, 애정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 당시의 사회상과 분위기 등을 생생히 전달한다.

한편,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에는 전라북도의 강미현, 강이건, 권세란, 김명진, 김문호, 김선임, 김종왕, 김진희, 류나라, 손숙희, 육광돈, 윤미순, 조찬희 건축사가 참여했다.

전북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 1) 일시 : 3월 25일(화)까지
- 2) 내용 :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 조경 면적을 활용한 야외 개방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내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 완화
 - 전통시장법에 따른 복합형 상가 건물 신축 시 높이 제한 특례 사항 반영
- 3)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공지사항 참고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종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케이플랜(K.PLAN) /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47, 304-1호
- 추성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로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 47, 304-2호
- 조용섭 건축사 / 조용섭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37, 703호

• 퇴회

- 백종호 건축사 / 호성 건축사사무소
- 이현숙 건축사 / 이노베이션 건축사사무소

• 부고

- 송숙희 건축사 / 백송 건축사사무소 / 시모상 - 2025년 02월 09일(일)
- 조영철 건축사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2025년 02월 13일(목)
- 김기범 건축사 / 범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02월 23일(일)
- 이규태 건축사 / 금성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03월 02일(일)

남문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전일빌딩을 다녀와서

장기섭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2025년, 새해맞이 첫 답사지는 광주다.

건축은 흔히 '시대를 담는다'고 한다. 많은 인간의 사회적 산물들이 그려하겠지만 건축은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 머무르며 시대와 문화를 말해주고 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된 종교 건축물 두 곳과 전일빌딩을 답사하며 우리가 사는 곳의 건축물이 어떻게 신앙과 역사적 시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건축가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담으려 노력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먼저 답사한 곳은 교회였다.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두 곳의 교회에서 보이는 공간은 사뭇 달랐다. 이러한 차이가 두 교회의 가치관 혹은 건축가가 바라본 지금 시대의 종교건축의 해석의 차이를 유추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남문교회

남문교회는 좀 더 전통적 종교 공간을 통해 신앙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만든 공간과 그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상호작용한다. 종교 건축이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에 어쩌면 종교 공간의 본질에 가깝게 느껴졌다.

처음 교회당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감싸는 압도적인 분위기, 스스로 작아짐을 느끼며 천장과 십자가를 올려다보게 하는 행동의 변화는 거대한 볼륨의 크기와 그 깊이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위해 고민을 거듭한 재료의 선택, 여러 번 덧그린 드로잉으로 결정된 미묘한 곡선, 건축가의 수많은 발걸음으로 세심히 고른 나무와 돌, 스테인드글라스의 좁고 높은 창을 통해 들어오도록 설계된 빛, 성경을 펼쳐 놓은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십자가 주변의 장식 그리고 그것들의 총합이 조화롭도록 시뮬레이션했을 세심한 배려들 때문일 것이다.

이것들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감각을 자극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로 미뤄 봤을 때 남문교회는 좀 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 같다. 어쩌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에 건축가는 종교인들이 좀 더 자신을 정화하고 신앙에 정진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곡선들이 조화롭게 펼쳐진 교회당 내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

남선교회

남선교회는 남문교회에 비해 좀 더 수더분한 공간이다. 거대한 경사로와 진입부의 높은 곡선의 벽이 종교적 신앙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좀 더 편안하고 쾌활한 느낌이다.

관찰되는 두 개의 볼륨 중에 식당과 청년부가 자리한 볼륨은 멀리만 창들과 수평 띠 때문인지 종교적이기 보단



경쾌한 모습의 교회 진입부

다소 공공건축물에 가깝다는 인상마저 들게 하였다. 또 각 층의 외부공간에서 시선이 교차되는 공간들도 공간을 좀 더 편안하고 밝은 인상을 들게 만들었다.

이 교회는 좀 더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교회의 인상을 받는다. 그런 공간을 위해 건축가는 변화하는 사회 속의 종교공간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시대의 종교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에 대한 남선교회의 가치관, 그것을 담아내려는 건축가의 노력으로 읽혔다.

혼자 생각하건대 이 교회에 다니면 마주치는 누군가와 쾌활하게 큰소리로 인사할 것만 같다.

전일빌딩

마지막 답사지는 5·18민주화쟁의 역사를 담은 전일빌딩이다.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조화롭게 정착한 도시, 시대를 쌓아가며 역사의 흔적이 묻어나는 도시는 그 자체로 역사다.

전일빌딩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자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긍심의 역사로 건축가로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라면 욕심은 나겠지만 도망갈 것 같다.

전일빌딩에서의 느낌은 건축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강된 구조부재는 애써 찾으려 해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마저 각각의 부재는 전체의 공간 구획과 합을 맞춰 배치된 듯 보였다. 새로 깔린 듯 보이는 바닥재도 최대한 기존의 것을 닮은 것들을 찾아낸 것처럼 보였다. 마치 건축가가 드러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나의 쓰임이 다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건축가의 미덕이라 생각한 듯한 느낌이다.

수많은 요구들 속에 균형을 이루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기능을 입히는 방법. 역사적인 건축물을 다루는 건축인의 방식이 느껴졌다.



천장에 거울을 통해 낮은 층고의 1층 공간을 보완한 것 같다.



기존 건축물 바닥 마감과 새로 깔린 마감재

건축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건축가가 각기 다른 공간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시대와 문화를 담았다.

건축사로서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보는 건축사의 인식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름을 많이 느낀다. 더군다나 어려운 경기 속에 건축가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기 쉽다.

우리의 일이 시대를 담고 그 공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임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건축가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젊은 건축가로서 나 또한 이번 답사를 통해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종교와 역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작업을 한 세 분의 선배 건축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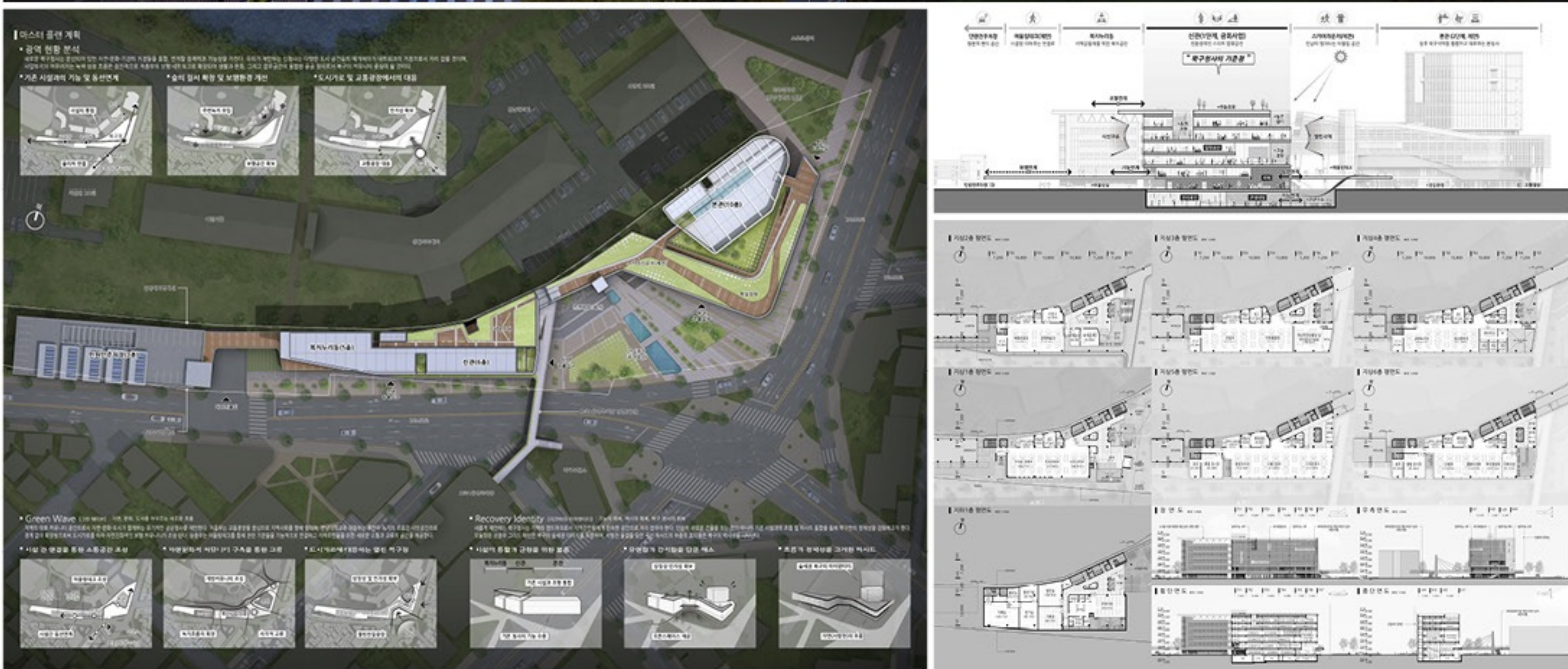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건축설계 공모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역성과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신청사 사업의 첫 단계인 '북구청사 신관' 건립으로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대민업무 수행, 사회·문화적 활동공간 등 시민친화적인 공공청사 조성하기 위함임.

심사위원 : 정주성(전남대), 김근성(경상대), 오상목(호남대), 이승우(경북대), 이왕범(해오름건축), 송성욱(순천대), 정명환(지웃건축)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용봉동 242-2 외 12 필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2,874.10㎡
 - 건축면적 : 1,115.30㎡(금회신청)
- 연 면 적 : 6,414.85㎡(금회신청)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부마감 : 알루미늄시트, 알루미늄 루버, 로이복층유리 등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석고대죄

겨울내 차가운 연못에
처절하게 고개 숙이고
그동안 모든 잘못 뉘우치며
새봄을 기다린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민을 못살게 굴었던 잘못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고
꾸짖고 욕했던 내 자신

지나 간 모든 잘못 뉘우치고
허리 부러지도록 용서 빌며
새봄이 오면 새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리

비록 굽부러진 허리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차가운 도심의 물속에서
용서를 빌리라.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 청미래 / 2023. 05. 03.



알랭 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은 건축이 우리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철학적 에세이다. 그는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감정적, 심리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 그의 글은 단순한 건축 비평을 넘어, 건축이 어떻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건축을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작품으로 끌어오는 알랭 드 보통의 시각이다. 그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건축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추상적인 사물의 의미를 짚어내는 일과 관련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그는 해박한 미술사적 지식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건축물이 지닌 철학적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가 건축을 단순한 기능적 요소가 아닌 감성적이고 심미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우리가 감탄하는 건축물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우정, 친절, 섬세, 힘, 지성 등의 긍정적인 특질과 연결된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다. 아름다운 건축이란 결국 우리의 번영과 핵심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건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알랭 드 보통은 건축물에서 ‘이야기’와 ‘미덕’을 끌어내어 설명함으로써, 딱딱하고 생동감 없게 느껴지던 건축에 인간적 활기와 친화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존재이며, 좋은 건축이 우리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아파트, 빌딩, 가구를 기능적인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철학적 의미와 미학적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열린다. 그리고 좋은 건축이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나아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간이 인간의 감정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또한, 디자인과 예술, 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건축》은 우리 삶 속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다. 건축이 단순히 형태와 기능을 넘어, 우리의 감정을 조율하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다. 알랭 드 보통은 그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간과했던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었다. 그의 글을 통해, 우리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The Hive
(Learning Hub
South - LHS)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2025년 1월 19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